

- 주요 뉴스: 미국 1/4분기 성장률 및 3월 PCE 물가 발표, 향후 통화정책 영향 등에 관심
 - 미국 4월 2주차 은행 예금, 전주비 감소, 은행권 불안보다 장기 통화긴축에 기인
 -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, ECB의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, 일부 이전도 존재
 - 일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전월비 보합. 일본은행은 현행 정책기조 유지 예상
 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통화정책 전망 및 1/4분기 기업실적 결과 등이 영향
 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6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
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중국 1/4분기 성장률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5월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이 원인
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4bp 상승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2% 상승, 한국 CDS 상승

주요지표					주요지표				
		4/21일	4/14일	전주말대비			4/21일	4/14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133.5	4,137.6	-0.10%	국채금리 10y	미국	3.57%	3.51%	6bp
	유럽	469.00	466.91	0.45%		독일	2.48%	2.44%	4bp
	중국	3,301.3	3,338.2	-1.11%		영국	3.76%	3.67%	9bp
	일본	28,564	28,493	0.25%	CDS 5y	한국	46bp	44bp	2bp
	한국	2,544.4	2,571.5	-1.05%		중국	73bp	68bp	5bp
환율	달러지수	101.82	101.55	0.27%	위험지표	EMBI+	428	407	21bp
	유로화	1.0986	1.0992	-0.05%		VIX	16.77	17.07	-1.76%
	엔화	134.16	133.79	-0.28%		WTI유	77.87	82.52	-5.63%
	위안화	6.8914	6.8691	-0.32%	원자재	구리	398.0	410.7	-3.08%
	원화	1,328.2	1,298.9	-2.21%		금	1,983.1	2,004.2	-1.0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/4분기 성장률 및 3월 PCE 물가 발표, 향후 통화정책 영향 등에 관심

- 4/27일 1/4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. 블룸버그에 따르면, 2.0%를 나타내 전기(2.6%) 대비 낮으나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. 구체적으로는 개인소비, 비주택투자 등이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, CAPEX는 부진할 것으로 관측. 이는 경기침체 가능성을 초래할 소지
- 4/28일에는 3월 PCE 및 근원 PCE 물가지수가 공개되며, 시장에서는 각각 4.6%, 4.5%를 기록하여 전월(5.0%, 4.6%)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추정. 근원 PCE 물가의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주의할 사안
- 1/4분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고 가정해도 3월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(연율 2%)를 큰 폭 상회한다면 5월 FOMC는 0.25%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. 최근 다수의 연준 인사들도 추가 금리인상을 지지
- 한편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, 연방기금금리(현재 4.75%~5.00%)는 5월 0.25%p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해당 수준에서 9월까지 유지될 전망. 이후에는 11월, 12월 및 '24년 1월, 3월, 5월까지 5회 연속으로 각각 0.25%p 인하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4월 2주차 은행 예금, 전주비 감소. 은행권 불안보다 장기 통화긴축에 기인

- 4월 2주차(4/12일 기준) 은행 예금은 전주비 762억달러 감소. 특히 대형은행과 외국기관에서의 감소폭이 큰 편. 반면 은행대출은 138억달러 증가. 대형은행 중심으로 예금감소가 발생했으며, 이는 최근의 은행 실패가 아닌 장기간의 통화긴축이 주요 원인임을 의미(Bloomberg Economics의 Stuart Paul)

■ 골드만삭스, 미국 내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- 기업의 자본조달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, 이에 은행이 대출기준을 강화해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. 전면적인 금융위기 발생 위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

■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, ECB의 금리인상 중단은 시기상조. 일부 이견도 존재

- 마쿨로프 총재는 역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고려 시 통화긴축 중단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발언. 금리가 지속적으로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수급의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
- 그러나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르나라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지표를 반영한다면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

■ 영란은행 부총재, 통화긴축 기조 유지할 필요

- 램스덴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, 과도한 통화긴축의 위험보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이 더욱 크다고 분석
- 반면 텐레이로 위원은 최근 경제 여건에 비해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. 특히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

■ 중국 시진핑 주석, 혁신 기업 지원이 중요.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

- 기업들의 기술 장벽 극복이 필요하며, 기업 주도의 혁신이 첨단기술 자립의 근간이라고 언급.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제거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

■ 일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전월비 보합. 일본은행은 현행 정책기조 유지 예상

- 3월 소비자물가(신선식품 제외)의 연간 상승률은 3.1%로 전월(3.1%)과 동일한 수준.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.8%로 전월(3.5%) 대비 올라 10개월 연속 오름세
-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하지만,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을 확신할 수 없어 일본은행은 완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(Dai-ichi Life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2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, 4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
- 독일 4월 IFO 경기여건지수, 영국 4월 Rightmove 주택가격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금융당국, 그림자 금융의 잠재 리스크에 주목할 필요 - 블룸버그

(America's Shadow Banks Need Some Attention, Too)

- 현재 미국 금융당국은 당면한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 해결에 주력. 하지만 최근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에 따른 MMF 등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비은행 금융의 잠재적 취약성이 증대
- MMF로의 자금 쏠림은 은행시스템의 신용경색을 촉발할 소지. 아울러 부채한도 협상지연으로 그림자 금융의 막대한 국채 보유도 문제가 될 우려. 경기침체 발생 시 모기지 연체 및 채무불이행 확대로 이어져 민간 대출업체의 불안정 초래
- 당국은 보다 엄격한 담보요건을 통해 그림자 은행의 차입, 레버리지를 규제하고 MMF 억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. 아울러 데이터 격차 축소를 통한 정부와 대중의 해당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파악도 중요

■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기업실적, 실적침체 종료 근접 가능성을 시사 - 블룸버그

(Better-Than-Fear'd Earnings Has Analysts Rethinking Projections)

- S&P500 기업 중 20%가 1/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, 이 가운데 77%가 예상치 상회. 이는 그 동안 지속되었던 실적침체가 점차 종료 시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. 시장에서도 과도하게 낮은 실적 전망치가 제시되었다는 의견 제기
- 실제로 S&P500 기업의 전년동기비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'22년 2/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, '23년 1/4분기에는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(Bloomberg Intelligence). 경기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주요 금융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을 고려 시 은행권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도 벗어난 것으로 추정

■ 국제 금 시세의 가파른 상승, 향후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시사 - Financial Times

(What strong gold says about the weak dollar)

- 최근 금 가격은 상승세 지속.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금융제재의 무기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신흥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. 이는 이들 국가의 탈달러화 시도를 의미
- 아울러 여러 국가에서 '20년 이후 자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및 무역부문 활용을 시도. 미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활용된 달러화는 이제 미국 달러화의 무기화, 국가부채 증가, 중국의 부상 등으로 또 다른 도전에 직면

■ **SVB 파산, 디지털 뱅크런 위험 대비의 중요성 부각 - Financial Times**

(Wake up to the dangers of digital bank runs)

- 최근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실시간 모바일뱅킹과 결합되면서 뱅크런 사태를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. SVB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은행 및 정부의 대응이 소셜미디어의 전파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
- 연준은 소셜미디어와 모바일뱅킹에 대비해 유동성 할인창구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, 규제당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스트레스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유동성 규제요건을 변경할 필요
- 위기 발생시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이 최선이겠지만 상업은행의 공공화 문제와 비은행 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

■ **미국 지방은행, 여전히 높은 금리 등의 어려움에 직면 - WSJ**

(Regional Banks' Deposit Remix Not as Good as the Origina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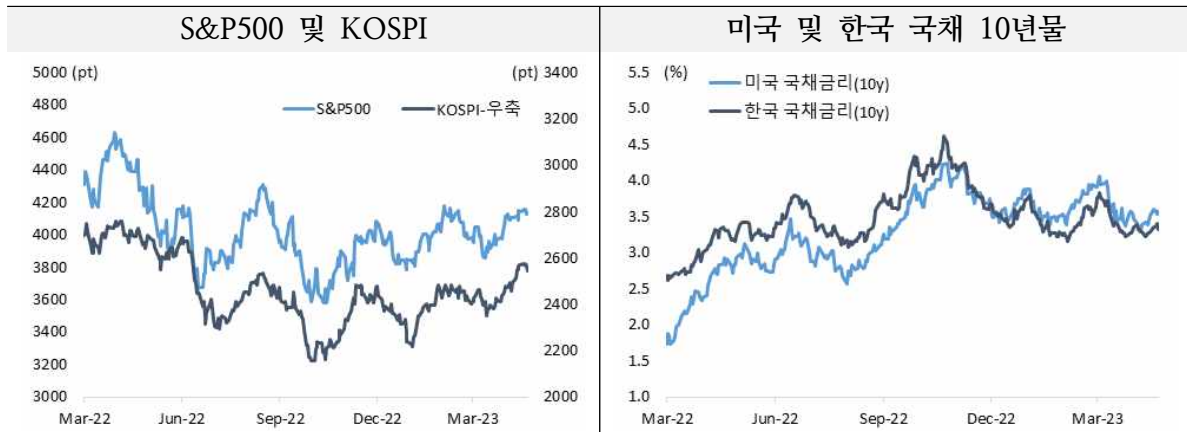
■ **중국의 부동산부문 지원 계획(Three Arrows Program), 실효성은 불확실 - WSJ**

(China's Latest Plan to Save Developers Is Rubbish, Too)

■ **글로벌 고수익 채권 가격, 유동성 축소 등으로 하락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
(Bonds in Trouble as \$1 Trillion Liquidity Drain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